

서울 중계동 도심포교당 법장사

9년만에 새법당 동지

출·재가자 재정·행사 공동운영 '눈길'

창건때부터 스님·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사찰재정 공동운영으로 주목 받은 법장사가 뚜렷한 사찰 재정 공개운영에 힘입어 창립 9년 만에 자체 법당을 마련했다.

서울 중랑구 묵1동에 소재한 봉화산 법장사(주지 법장·종암승가대교수)는 23일 조계종 원로 성수 스님을 증명법사로 감격적인 사찰 건립 낙성식을 가졌다.

91년 창동역앞의 빌딩 건물(60평)을 임차해 창립, 93년 중계동 빌딩(150평)으로 이전하면서 모범적인 도심 포교당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법장사가 드디어 300평 가량의 부지를 마련해 대법당, 선방, 교육관, 유아실, 기도실, 환회실,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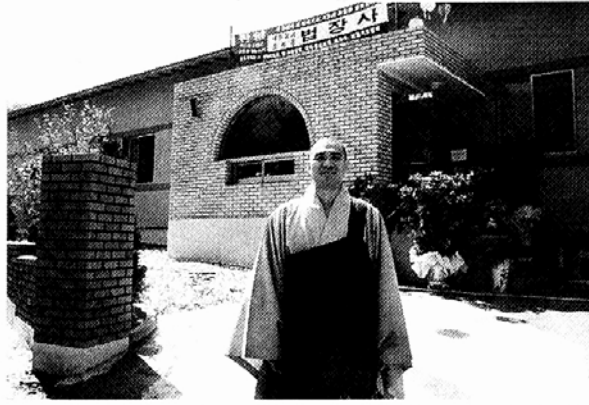
동친교실 등을 갖춘 도량으로 거듭난 것이다.

서울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포교당으로서 법장사가 주목을 받아 온 까닭은 출·재가가 함께하는 사찰 운영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사결정을 공평무사하게 진행한다는 것, 상임법사 스님 6명, 거사회·청년회, 각 지역법회 임원, 영산불교대기수별 임원, 사무장, 편집장, 종교대학생 및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등 50명에 이르는 운영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도들의 기도금 접수에서부터 건축 불사에 이르는 사찰의 재정과 주요행사를 직접 관리해 온 것, 사찰 구성원 모두가 '절의 주인'이기에 주지 법장스님은 '총신

도회장'이란 직함을 또 하나 갖고 있다.

하지만 법장사의 성장 배경에는 성공 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97년 11월18일 서울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신내동택지개발지구의 종교부지를 10억원에 매입하자마자 IMF 관리체제가 시작돼 사찰 기공식을 하지도 못한 채 1년간 1억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등 힘든 난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주지 법장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의 끊임없고 간절한 정진과 기도 덕분이다. 조석 예불은 물론 때를 가리지 않는 사찰 구성원들의 수행력이 다른 포교당 보다 특별한 점이었다. 이는 물론 '수행과 포교'를 톺아 보지 않고 매년 1회이상 전국 선원에서 안거에 드는 법



◇서울 중랑구 신내4단지 아파트지역에 자리잡은 법장사 앞에 선 법장스님.

장스님의 '실천공행'에 기인한 것이었다.

수유동 운가사에서 지도하던 어린이법회 출신 10명의 청년 불자와 함께 시작한 포교당은 처음 불상조차 마련하지 못해 석굴암 본존불 사진을 모시고 개원법회를 봉행할 정도로 열악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만에 본존불과 관세음보살, 문수보살상을 모시면서 포교당에 신도들이 늘어나기 시작, 영산시민불교대학을 연지 9년만에 21기 2천명

중 단 소식

조계종

자비의 집 헌관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구지부 동화사소속 노인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원장 최동원)이 지난 3일 중구 남산동 보현사영으로 이전한데 이어 20일 헌관식을 거행했다. (053)253-1082

한암·탄허스님 추모비제막

제4교구 분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5월1일 오전 10시30분 월정사 적광전에서 한암 대종사의 제125주기 탄신재를 겸해 한암·탄허대종사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한다. 추모비는 상원사에 건립된다. (0374)332-6661

태고종

극락사 평화의 탑 점등

포천 극락사(주지 심명)는 남북평화통일 및 조국의 안보를 기원하는 평화의 탑 점등식을 27일 저녁 8시 월정리 전광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점등 법요식에는 인곡 총무원장을 비롯 중단 스님들과 경기북부 지역 사찰 주지, 극락사 신도, 6사단장을 비롯한 군불자 등 5백여명이 동참한다.

천태종

대광사 요사채 상량식

분당 대광사(주지 운덕)는 요사채 상량식을 28일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5번지 협지에서 개최한다. 이날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중단 스님들과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342)712-2269

진각종

심인당 부지매입 의결

종회의(의장 류형)는 19일

제321회 정기총의회를 열고 진기 53년도 통리원, 교육원 등 각 부 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또 서울 명선심인당, 경주 선해심인당, 포항시 장성동 부지 매입 등을 의결했다.

18-19일 춘기 스승강공

교육원 주관으로 18~19일 이틀동안 상북구 총인원에서 중단 소속 전승승(정사 대정사 등)과 종립학교 정교, 교회사무를 대상으로 한 진기 54년 춘기 스승강공을 가졌다. '대 참회로써 미래를 열자'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강공은 일정교육원장이 주재장론, '참회와 불공' '참회와 보리심 등 교법 강의, 정원각 대전수와 열화인 전수의 체험법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법학종

'평화의 종' 종각 기공식

27일 정오 관문점 비무장지대 도라 OP 전방대에서 제1사단과 함께 점등법요식을 갖고 아울러 '평화의 종'을 봉안할 종각의 기공식을 봉행한다. 평화의 종은 평화통일과 국운을 창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한 규모 1천여평의 대종으로 오는 8월 15일 광복절날 봉안식을 가질 예정이다. (02)764-2678

조동종

내달 26일 중정 추대식

승정원(원장 춘담)은 18일 청린사 승정원 회의실에서 회의록을 열고 제3대 중정 윤지명스님의 추대식을 5월 26일 오전 11시 하림각에서 갖기로 했다. 또한 승정원 인원수를 10명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무량종

총무원 은암정사로 이전

총무원(원장 지은)은 20일 부산 은암정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총무원 사무실을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은암정사로 이전키로 결의했다. 새 총무원 전화 (051)292-4586



◇양산신사삼엄연합회는 16일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 위안 잔치 및 효부 효자 시상식 을 개최했다.

삼광효행상 및 제9회 경로잔치를, 경기 남양주시 불암사(0346-527-8345)가 26일 오전 11시 제2회 노인잔치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 △두송복지관(4월21일) △개금복지관(5월 6일, 21일 경로관광) △물운대복지관(5월8일) △용호복지관(5월 8일, 19일 온천관광, 21일 경로관광) △공감복지관(5월12일) 등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경로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02-914-5447)=26일 오전 10시30분, 성북구민회관 △대구 관음사(053-474-8228)=29일 오전 10시 노천법당 △부산동래구불교연합회(051-552-1283)=5월1일 정오, 동래문화회관 △부산은혜연(051-624-7667)=5월7일 오전 10시, 부산역 광장서 영정사전적 어주기 △금정불교대학총회(051-866-7277)=5월4일, 장소 미정 △안성 도피안사(0334)676-8700=5월11일, 하루 종일 △부산 해운정사(051-746-2256)=5월5일 오후 1시30분 등의 경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김재경·천미희 기자

산불 이재민 돕기 탁발

석림회·월정사등

'동국대 경주캠퍼스 석림회 법사단'은 28일 오후 3시 '강원 산불 이재민과 불우이웃 돕기 자비의 탁발'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제1회 탁발의 날 선포식'(동국대 녹야원), 유행식발(경주시내), 점등식 참여(경주역) 등으로 진행된다.

석림회 법사단 법철스님은 "탁발행사가 결사의 정진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성을 밝히고, 불교가 이웃에게 화해와 인연의 자비행, 이타행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각종 복지재단(대표 이사 성초)은 17일 삼척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성북구청을 통해 350여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했으며, 승가원(이사장 현성)은 18일 삼척시에 갑자 300박스를 내놓았다. 또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도 19일 이불·의류 등을 내놓고 이재민 돕기에 동참했다. 영동사암연합회와 월정사, 신홍사 역시 지난 12일 '자비의 탁발행사' 등을 벌여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게 쌀금 700만 원과 냄비, 의류 등을 전달했다.

한명우·김재경 기자 (mwhan@buddhapia.com)

20-23일 계룡산 산신제

문화공연·학술회도

계룡산 산신제 보존회(회장·구중희 공주대학교수)는 20~23일 국립공원 계룡산 신원사 종약단 및 계룡단 터와 용진동 금강변 고마나무 웅진단 터에서 계룡산 산신제를 거행했다. 불교·유교·무속 3교의식으로 거행될 계룡산 산신제는 신원사의 불교식 산신제, 공주향교의 유가식 산신제와 수신제 등으로 거행됐다. 또 이 기간에 '동북아시아의 산신신앙'이라는 주제의 계룡산 산신학술제도 열렸다.

5대총림 방장 친견법회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스님)는 27일부터 조계종 5대총림의 방장스님 친견법회를 마련한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28일)을 시작으로 해인총림 해인사 법전스님(5월5일), 조계총림 송광사 보성스님(12일), 덕숭총림 수덕사 원담스님(19일), 고불총림 백양사 서용스님(26일)을 차례로 찾아 친견법회와 도량참배 시간을 갖는다. (053)766-3747 김재경 기자

관음사 자인당 낙성

포대화상 점안식도

부산 사하구 당리동 관음사(주지 지현)는 19일 원통보전에서 포대화상 점안식 및 자인당 낙성 법회를 가졌다. 요사채인 지상 3층의 자인당은 총 5억 9천만원의 불사로 중무소, 대종선방, 스님방 등을 갖추고 신도들의 수행과 스님들의 수행공간을 구별한 현대적 사찰 구조로 설계 되었다.

부산=천미희 기자

사찰 경로잔치 잇달아

초파일·어버이날 앞두고

초파일과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 노인경로잔치가 잇따르고 있다. 사찰에서 개최하는 경로잔치는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효사상 보급을 통해 국민 정서 순화와 윤리의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지역포교의 큰 방편이 되고 있다

양산신사삼엄연합회(회장 도봉)는 16일 천불사에서 '경로 위안 잔치 및 효부 효자, 모범소년·소녀가장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또 울산 정토사(주지 주지 덕진)는 17일 지역노인 500여명을 초청, 경로위안 잔치를 펼쳤으며, 울산 청룡암(주지 종현)도 22일 '제2회 경로 큰 잔치'를 열었다. 또한 부산 삼광사(051-808-7111)가 5월4일 오전 11시 제6회

금강경 독송회

영령 천도제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6일 신라-백제간의 격전지였던 황산벌에서 650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순국 영령 천도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이날 김재웅법사는 "민족사 속의



국난이나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떠도는 한 맺힌 영가들이 천도되어야만 나라의 기운이 안정되고 미래가

밝아진다"면서 "14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전라-경상도의 지역감정이 부처님의 법륜으로 편안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93년 낙화암 삼천궁녀 천도법회를 시작으로 94년 낙동강 다부동전투지, 95년 공주 우금치고개(동학농민전쟁) 등 역사적인 전적지나 한이 서려있는 곳에서 천도법회를 봉행해 왔다.

김재경 기자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02)732-1522(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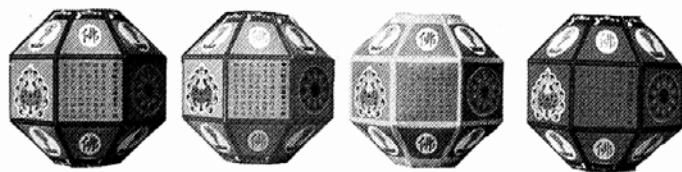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매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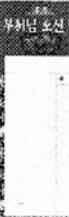
1. 연등의 윗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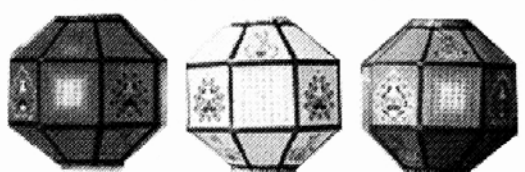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이름표>



비에 젖지 않습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점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이름표>



비에 젖지 않습니다